엉킨 삶의 실타래 푸는 법

(시편 65:1~13)

1.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2.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3.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4.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5.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엉킨 삶의 실타래 푸는 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엉킨 삶의 실타래 푸는 법'
삶에서 엉킴을 경험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인간관계 재정관계 가족관계 직장생활 혹은 출석하는 교회 등에서 삶이 엉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엉킴을 풀기 위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양상의 엉킴이라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심지어 그 엉킴이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내 건강상에 생기는 엉킴일지라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 때에 엉킨 실타래와 같은 삶의 국면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엉킨 실타래를 푸는 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엉킨 곳을 살펴보면서 실의 끝자락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마리를 찾아서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엉킨 곳을 잘라내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삶이 엉키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삶의 엉킨 부분을 들여다보고 풀어내려고 애를 쓸수록 삶은 더 엉키게 됩니다. 즉 마음이 삶에 참여할 때에 엉킴이 시작되고, 엉킨 것에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더 엉키게 됩니다. 한 마디로 마음이 삶에 참여하기 때문에 엉킨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칼슨(Richard Carlson)의 "유쾌한 부부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부부관계가 실타래 엉키듯이 엉켰을 때에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행복한 말로 답변하라'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사랑해요, 고마워요, 잘 했어요, 당신 밖에 없어요, 도와드릴게요, 잘 될

거예요, 믿음직스러워요, 당신 곁에는 항상 제가 있을 거예요, 어려울 때에 말씀하세요.'라고 자꾸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될까요? 이미 서로를 미워하게 된 부부 사이에서 이런 말들은 다 가증스러운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진심을 의심하고 가식적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엉킴을 해소하기 위해 단단히 결심하고 달려드는 모습은 마치 손에는 벙어리장갑을 끼고 눈을 감고 엉킨 실타래를 풀어보겠다고 시도하는 꼴입니다. 마음이 삶의 현장에 가담하고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삶은 엉키고 꼬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래 세상은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 뜻의 그물망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미줄 같은 하나님 뜻의 그물망 위에서 내 마음이 요동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커다란 풍뎅이가 거미줄에 걸려서 몸부림을 친다면 거미줄이 다 뜯겨져 나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심하기 이전에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모습을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잘 가꾸어진 포도밭을 초토화시키는 것으로서 비유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엉키는 이유는 마음을 참여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언제나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마음이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백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채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삶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혼해서 배우자와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마음 채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문제는 삶에서는 해결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어떻게든 삶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엉키고 꼬이는 것입니다.
마음과 삶은 원천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렇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는 방법이 삶의 여정입니다. 결코 삶의 여정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로 만나는 상황을 변화시켜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에는 불안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삶은 점점 엉킬 뿐입니다.
이렇게 엉킨 실타래와 같은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을 삶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따로 해결할 때에 삶의 엉킴도 해소됩니다. 절대로 삶의 엉킴을 해소함으로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삶으로는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배우자와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내 힘으로 풀겠다며 '사

랑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도와줄게요.'라는 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근본적 해결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아예 칼로 무를 자르듯이 문제와 마음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먼저 마음의 만족과 기쁨은 전혀 문제들과 관계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든 배우자든 그 관계는 마음이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풀어놓을 대상이 되어야지, 그들의 삶을 통해 기쁨을 추구하는 과정이 된다면 결코 문제는 해결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쓰인 시는 아닙니다. 엉킨 실타래와 같은 삶이 주어질 때에 선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을 교훈으로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라고 하였는데 말씀이 무척 어렵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라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1절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기다리오며'라는 말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다윗 시절에는 성막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하는 집이라는 의미에서 성전으로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두니야'라는 단어인데 '기다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의 뜻은 '침묵하다, 잠잠하다'라는 뜻입니다. 번역한 분들도 1절의 의미가 모호했기 때문에 의역을 한 것입니다. 번역에서는 이 '두니야'를 '기다리오며'라고 번역하여 문장 끝에 두었는데, 원문을 보면 본래 찬송이라는 단어 앞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1절을 다시 직역해보면 '하나님이여 침묵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침묵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께 있습니다.'라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밤에 달을 보면서 지은 시를 모두 모아 본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달을 보며 강강술래와 같은 민요를 부르면서 민속놀이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달에 대한 동경을 담은 시가 가득하지만 정작 달에 가보면 침묵만 있습니다. '침묵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께 있습니다'라는 구절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 외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있었습니다. 선민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을 바라보며 노래하듯이, 전국에 흩어져 사는 선민들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성전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를 모르는 선민이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달을 보며 노래하듯이 선민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그리워하며 기억하고 살지만 정작 성전에는 침묵이 흐릅니다. 즉 '하나님이여 침묵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께 있습니

다.'라는 구절은 전국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의 성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절 하반부를 보면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각자가 삶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에 대해 서원을 이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민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하나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마음으로는 성전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붙잡는데 주력하겠나이다.'라는 뜻입니다. 1절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은 후에 2절부터는 죄사함과 마음의 만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2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을 성전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민뿐만이 아니라 만국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며 살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마음의 문제를 삶의 현장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윤을 많이 남김으로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현장으로부터 마음을 반드시 분리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감으로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라는 말씀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5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라는 말은 앞선 4절의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라는 말씀을 받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인해 마음의 만족함을 아름다운 구원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할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객관적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상황을 아름다움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다'라든지 '참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곧 마음 문제의 해결입니다.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곧 인격이고 '나'라는 의식이 있는 영혼입니다. 이 마음의 공백에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는 삶의 현장에서 분리시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만족하게 되니 우리 구원의 하나님, 즉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라고 하였습니다. 선민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이 마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예루살렘에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의를 따라'라는 말은 나의 삶에 현장에 대한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이롭고 놀라 자빠질만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앞서 말한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삶에서 마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마음의 만족과 기쁨의 문제는 전적으로 성전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음으로 해결하겠다는 맹세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심으로서 마음을 보낸 자들에게 응답하실 것임을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8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요들에 대해 경계합니다.
세상의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에 붙잡혀서 마음을 성전으로 보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문제에 마음이 붙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 말고 삶의 현장으로부터 마음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둘이서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삶의 현장에 붙들려서는 안 됩니다. 육체가 먹는 것을 염려하느라 마음이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으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먹여 살리시는 것을 보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30절에 보면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이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시옵소서 /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 마음을 보낸 자들의 삶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 기도제목을 말하는데 앞의 두 가지만 성전에 와서 드릴 기도이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삶에서 마주칠 상황에 대한 기도입니다. 기근이 있을 때에나 전쟁에서 졌을 때에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성전으로 보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이 떠난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엄위하신

일로 경이로운 역사를 행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만큼은 삶의 여정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의 골(goal)로 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전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맹세해야 합니다. 이 성전의 모든 의미가 완성된 사건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삶에서 돈 문제가 얽히게 된 이유는 바로 마음이 돈으로 만족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가 얽힌 이유는 배우자를 통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돈 문제로부터 마음을 떼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거리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의 만족과 기쁨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으로 해결하겠다는 결심으로 맹세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돈 문제에 묶인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께서 아버지를 받아들이시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제를 하늘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로 기쁘고 만족한 마음으로 돈 문제에서나 부부 문제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할 때에 이제까지 막혔던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업과 장사는 돈을 벌어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얻은 만족과 기쁨을 표현할 방법이 사업이 되는 것이고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막힘이 사라집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일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럴 때에 계속해서 마음을 경계하며 절대로 삶의 현장에서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좋아할 때조차도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경이로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기쁨을 삼지 말고 마음이 하늘로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삶으로부터 원천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만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난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엉킨 삶의 실타래는 풀릴 것이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마음을 삶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하늘에서 완전히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답변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서 십자가를 끊임없이 붙잡음으로서 마음의 문제가 하늘에서 해결되게 해주시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